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장신대 신대원 ‘교회박현장실천’은 잘 마쳤습니다. 방모임에 참석하도록 배려하고 숙소와 식사 등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역할공동체별로 2/4분기 실행위원회를 모입니다.
- 다음 주일 오후에는 공동체 운영위원회 38차 정기회의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감사)
김종훈 집사 · 장미라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예찬 청년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송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7 호

2023년 7월 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계신가요?

2023년도 반이 지나고 벌써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공동체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3은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라는 <베드로전서 4장 8-9절> 말씀을 표어로 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라는 말씀은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의 말씀을 보면 심판을 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마지막 때에 각자는 모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야 하는데 그 우선된 방법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바로 우리 2023년 표어인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본질을 깨닫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켜가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이 말씀을 붙들고 표어를 생각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하고, 또 하려고 하면서 나름 사랑하려는 노력들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상이 바빠지고, 생활의 팍팍해지면서 표어를 잊어버리거나 등한시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서서 지금 다시 한 번 표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추스르고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엄청난 것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작은 메모 한 장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건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차 한 잔, 간식거리 하나라도 나누고,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어떤 이유든 들어서 간소한 식사라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처럼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해보겠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 그 마음과 따뜻한 섬김의 손길만이 기억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
<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08장 292장 / 315장

기도 :

성경 : 역대지하 12장

제목 :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1. 내용: 악한 왕 르호보암. (What)

<문단구분>

1~5 르호보암이 율법을 망각함

6~12 르호보암의 회개

13~16 악한 왕 르호보암

2. 의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른 르호보암. (Why)

- 1) 하나님을 버린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 2)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용서해 주신다.
- 3) 하나님 보다 세상 방식을 의지한 르호보암.

3. 적용: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How)

- 1)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 2) 겸손, 하나님 앞에 서는 삶.
- 3)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2023년 상반기는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학교에 합격해 너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있고, 잠시 부모님을 떠나 생활해 보면서 혼자서 부딪치고 경험하며 아주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방교회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방교회에 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벅찬 마음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았으나 기쁨도 잠시, 신청한 학교기숙사가 '대기 8번'을 받는 예상 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려 계획하고 중국을 떠났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어요. 그리고 40여 일간의 드라마 같이 기적처럼 어머니 친구분이신 저경하 사모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동이라 늘 심심했던 저에게 동생도 세 명이나 생겼네요! 그리고 어렸을 때 왔었던 사랑방교회에 거의 10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중국에 돌아가 현지 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다른 언어 환경 때문에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남들보다 배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아직 그때를 떠올릴 때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일 거예요. 요즘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사랑방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가며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온 이후로, 저 스스로를 더 온전히 안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안아주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경하 사모님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모임, 수련회, 보리수나무... 잊지 못할 많은 처음과, 아름다운 순간들을 선물해주셨어요.

잠시 본가에 다녀오기 전에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주보 한쪽에 자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제게 주신 사랑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께 함께하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늘푸른사랑방 박은지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15 : 1-4a
26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가복음 2 : 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59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디모데 전서 1 : 18-20 설교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루티기사랑방
“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357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영동 전경희/ 봉헌위원 : 임진숙/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매일의 경건 훈련이 은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은 사랑하는 자인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양심은 모든 이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양심이 타락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양심에 낙인이 찍힌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위선과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이들은 결국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길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향해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믿음과 연결되고 믿음은 선한 행실을 나타냅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은 선한 싸움을 위한 온전한 무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위해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매일의 훈련이 선한 싸움을 지속하게 합니다. 경건을 훈련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진정행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서로 돕는 사람들이라는 6월의 주제를 다루려 꾸러기들이 집안 어른들의 일을 조사해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꾸러기들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엄마, 아빠, 사촌 언니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사진과 영상을 준비해서 서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더 잘 듣기위해 듣고 난 후 문제를 내고 맞추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 며칠을 못 온 ㅈㅅ이는 집에서 영상을 찍어 보내서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주부, 농부, 목사, 교사, 강사, 회사원, NGO활동가 등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는 여러 일들이 어떤 이들을 어떻게 돕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꾸러기들이 활동을 통해 삶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며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일곱살 언니들은 금속공예품들과 도자기들을, 오빠들은 박물관이 제시하는 중요전시품들을, 동생들은 어린이들이 그려져있는 그림과 도자기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조용하고 의젓하게 잘 살펴보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신라왕관, 팔찌, 가락지, 석탑, 작은 청자합, 김홍도의 서당 등 서로 다른 마음에 남는 전시물들을 이야기하며 보지 못한 것들을 서로 궁금해 하고 더 보고 싶고 다시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십장생특별전도 보고 만지고 조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찰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서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비가 내려서, 땅이 질어서, 감자를 캐야 해서 거의 매일 장화를 신고 등교했던 친구들은 비 내린 날은 장화를 신고 물웅덩이를 휘저어볼 수 있어서 신났지만 구름이 걷히고 피약별이 내리쬐면

더워서 좀 힘들었지요. 비도 많이 내리고 기온도 높으니 나무와 풀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렁이, 개미, 나방, 나비, 각종 애벌레와 새들, 그리고 뱀까지! 우거진 풀숲에 다니는 자연 친구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때로는 예뻐하고, 신기해하고, 또 때로는 “까악~~~!” 소리 지르면서 지냅니다.

수요일 1교시. 마침 비가 안 오는 날을 잡아서 모두 다 같이 감자를 캐었습니다. 덮개들을 벗겨내고, 감자 줄기를 뽑으니 둥글둥글 잘여문 감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무더위와 흙먼지 때문에 땀을 쏟고, 옷에 흙먼지는 잔뜩 묻었지만, 하교할 때 감자가 가득 든 까만 비닐을 품에 안고 가는 보람을 누렸어요.

수요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어린이 친구들과 모두가 멋쟁이학교 두 선배님이 판매하는 음료를 사먹었습니다. 음료를 먹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멋쟁이들의 MSD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날을 정해서 사먹었습니다.

이제 1년의 반이 지났고, 이번 학기도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저 밭에 쑥쑥 자라는 옥수수처럼 어린이 친구들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4학년이 건강히 귀국하며 모두가 모인 멋쟁이학교의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멋쟁이들도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 자율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요일 노작시간에는 실하게 익은 감자를 캐었습니다. 특별히 학기 초 직접 씨감자를 심었기에 더더욱 이 수확이 즐거운 듯 합니다.

목요일 공동심화학습 시간에는 멋쟁이들이 여행사 직원이 되어 여행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멋쟁이의 여행을 다시 돌아보며 의미를 강화하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을 기획하는 TF팀에 의해서 무려 무인도 여행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음 주는 학기말면담이 있는 주간입니다. 멋쟁이들이 피드백을 거름으로 훌쩍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교사들이 너무 피곤치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돈희 >

갈색 날의 감사

기나긴 갈색,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초록. 초록이 가장 짙은 계절, 여름에 세어보는 갈색 날의 감사.

벌써 잊어버린 날. 기독교 대안학교연맹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반갑게 만나려고 그렇게 살았구나. 사랑니 뻐 날. 육체의 고통은 무섭게도 쉽게 잊혀. 새것을 사랑하는 나의 새 안경. 안경을 언제부터, 왜 쓰게 되었더라. 글썄.

나의 여행이 고프다. 근데 또 틈 없이 알차게 다닌 날. 서로를 잘 안다고 자부하며 떠난 친구들과의 여행. 처음 보는 나와 너, 우리. 당황과 잠깐의 찌푸림. 그래도 신뢰와 애정으로 웃어. 엄마, 아빠와 여수에서 먹은 음식들. 딱 맞는 간만큼 알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모로 절대 잊지 못할 홍콩 여행. 정직은 자유 빼기. 솔직은 자유 더하기.

강렬한, 또 은근한 기쁨이 잔잔히 오래가던 날. 함께 인왕산을 등반하며 소망을 나누고, 얼마 뒤 취업 소식을 전해준 친구. 타인의 희소식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타인이 아니기 때문이려나. 오빠의 10년 장신대 생활을 마무리 짓던 날. 축하하고, 기도하고. 환갑을 맞이한 아빠. 사랑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떠났던 우리의 갯봉. 같은 말에, 같은 행동에, 같은 호흡으로 웃는 우리. 이제는 미움 없이 애정으로 가득해.

뜻을 모으는 방에서의 날. 끝과 시작에 인사하며 졸업을 축하해. 그리고 반가워, 개강 여행. 감사로 한 걸음 걷기, 영광으로 두 걸음 뛰기. 나 도보여행 좋아하네. 축가는 빗소리를 뚫고. 쏟아지는 비만큼 축하했고 축복해요. 앗싸! 뭐든지 자신 있는 우리 함께 놀아요! 든든한 선생님들, 언제나 튼튼하시길!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288장, 452장

성경 : 요한복음 20장 24~29절

말씀 :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중보기도 :

1.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오두막공동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사랑방공동체를 방문하는 신대원 학생들의 '교회밖현장실천'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본격적인 장마로 인해 공동체 마당에 물길의 생길 정도의 큰 비를 경험했습니다. 잠시 비가 그치면 감자도 캐고 밭도 정리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신대원 2학년 분들이 <교회 밖 현장 실천>으로 공동체에 2박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공동체 신학과 영성에 대한 강의도 듣고, 노작도 하고 지역 방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사랑방 공동체를 경험해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동 식구들은 더운 날씨에 숙소를 내주시고,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침구류를 마련해주시는 등, 보이지 않게 섬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감당하실 전도사님들께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